

석사학위논문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김 혜 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고 민 좌

2000년 8월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김 혜 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고민좌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고 민 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혜 숙

자아분화는 개인내적으로는 지적, 정서적 체계가 잘 기능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외적으로는 주체성이 뚜렷하여 주위의 영향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고 주체성이 뚜렷하지 못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게 되면 특별교육생이 된다. 이들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알게 된다면 일반인과 상담 및 지도를 하는 이들에게 특별교육생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특별교육생들의 가정환경, 자아분화수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그리고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관계를 일반학생들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실험대상은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기관인 ‘제주상담센터’에 교육을 의뢰한 특별교육생들과 일반학생으로는 시내 인문계 고등학생들이다. 특별교육생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1999년 학교 방학기간을 제외한 8개월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검사를 한 후 최종 분석시에는 54명의 검사지가 이용되었고, 일반학생의 경우는 2000년 3월에 남, 녀 각각 고 2학년 한 반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두 집단의 가정환경을 비교하고,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하위영역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가족투사과정과 자아분화총점을 t -검증하였으며,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알기 위해 수동적 갈등완화방식, 수동적 갈등회피방식, 능동적 갈등격화방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t -검증하였다. 또한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는 spearma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 이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에서 특별교육생의 부모생존이 63.0%인데, 일반학생의 부모생존은 94.2%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특별교육생 집단에서 대졸이상이 8%, 중졸이하가 40%인데,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대졸이상이 39.8%, 중졸이하가 11.7%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을 보면 일반학생의 부는 40대가 85.1%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특별교육생의 부는 연령이 36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모의 연령 또한 두 집단 모두 부의 연령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별교육생 집단의 소득수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학생 집단의 소득수준은 가장 많은 비율이 150~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자아분화수준은 일반학생들이 특별교육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 하위영역에서는 두 집단간에 자아통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별교육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가족내에서 가족투사과정이 더 많이 나타나며 정서적 단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문제해결시 가족퇴행적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능동적 갈등 격화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특별교육생들은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일반학생은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네째,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의 관련정도를 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가족투사과정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도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체 자아분화수준은 수동적 갈등완화방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학생의 경우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수동적 갈등회피방식과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가족투사과정도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체 자아분화수준은 능동적 갈등완화방식, 수동적 갈등회피방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능동적 갈등격화방식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두 집단의 큰 차이점은 특별교육생들은 가족투사과정을 겪을수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일반학생들은 가족투사과정을 겪지 않을수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두 집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투사과정은 가족체계의 역기능에서 기인하므로, 특별교육생들이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II.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	5
2. 가족체계 이론	7
3. 청소년과 자아분화	10
4.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측정도구	21
3. 자료수집 절차	25
4. 자료 처리	25
IV. 결과 및 논의	26
1. 가정환경 비교 분석	26
2. 자아분화 수준의 비교 분석	28
3.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비교 분석	30
4.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	32
V. 결론 및 제언	35
참고문헌	39
Abstract	42
부 록	46

표 차 례

<표 1>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	21
<표 2> 자아분화 척도 검사의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계수	22
<표 3>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유형	24
<표 4> 가정환경 비교 분석	27
<표 5> 부모 생존과 친한 친구 수	28
<표 6> 자아분화 수준 t-검정	30
<표 7>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 t-검정	31
<표 8>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	32
<표 9> 일반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	34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 청소년 비행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내용을 보면 가출, 무단결석, 재물파괴에서부터 절도, 폭행, 강간,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비행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역기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으로 해석해보면 어느 한 청소년의 부적응, 역기능적 행동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자아분화는 개인내적으로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외적으로는 외부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의 정도를 말한다. 이들의 자아분화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들 가족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낮고 가족체계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체계의 역기능은 곧 개인으로 하여금 부적응, 역기능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¹⁾ 이러한 부적응, 역기능은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대인간 갈등 상황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더욱 더 사회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학교에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아 일반인들에게는 소위 비행청소년으로 인식이 되고 현재의 학교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의 삶을 택하기도 한다.

1998년부터 각 도교육청에서는 퇴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다시 재등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교육'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1) 김오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데, 그 주체가 공교육기관의 모체인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정시간 동안의 상담교육을 이수하면 다음 해 신학기에 재 등교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학교에서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퇴학 처리하는 대신에 특별교육을 받게 한 후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좀 더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으로 근본원인을 찾는다면 치료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실시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분화 수준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분화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부적응 청소년 혹은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을 대인 관계적인 측면과 연결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특별교육생들의 가정환경, 자아분화수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그리고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관련성을 일반학생들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교육생들의 가정환경과 자아분화수준이 일반학생들과 차이가 있고, 자아분화수준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특별교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된다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담 및 지도를 하는 이들에게 특별교육생들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육생과 일반학생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둘째, 특별교육생과 일반학생의 자아분화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특별교육생과 일반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특별교육생과 일반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 1) **특별교육생** : 특별교육생은 고등학교에서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기관에 의뢰된 학생들 중 가출, 폭력, 무단결석, 절도 등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말한다.²⁾
- 2) **일반학생** : 일반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을 말한다.
- 3) **자아분화** : 정신의 내적인 면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념이다. 정신 내적 측면으로는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2) 중등 교육법 18조 '학생의 징계' 참조

자아분화의 주된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 한 개인의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 (2) 자아의 통합 : 자아는 진짜자기와 가짜자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아의 통합이 잘 되었다는 것은 진짜자기가 발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 (3) 가족의 투사과정 :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삼각관계에서 한 자녀 이상에게 장애가 나타나는 과정을 말한다.
- (4) 정서적 단절 : 개인이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 (5) 가족 퇴행 : 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비건설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 사람들이 갈등 해결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동적 갈등완화방식, 수동적 갈등 회피방식, 능동적 갈등 격화방식, 능동적 갈등 완화방식 4가지를 말한다.

- (1) 수동적 갈등완화방식 :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등.
- (2) 수동적 갈등회피방식 : 내 욕구를 줄이거나 자제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거나 더 이상의 갈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 등.
- (3) 능동적 갈등격화방식 : 상대방을 헐뜯어 말다툼을 한다 등.
- (4) 능동적 갈등완화방식 :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갈등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등.

Ⅱ .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발달에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많은 연구 중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문제해결, 그리고 청소년 정신질환 발병 원인에 가족의 변수들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즉 가족집단은 청소년의 인간성을 키우는 결정적인 변수로서 가족은 사회가 대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³⁾

현대 사회처럼 급변한 때도 드물다.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비행 역시 다양화되어 여러 종류의 비행이 있으며, 비행을 하는 청소년 역시 여러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김유숙⁴⁾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추세 속에서도 사회계층의 붕괴된 가정과 관련이 있는 비행의 숫자는 압도적이다. 비행 청소년을 보면 그들의 가정환경은 결손 되어 있고 가족의 친밀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 문제 행동이 비롯되는 경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Jenkins⁵⁾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강조하면서 사회과정에서의 결손을 비행의 주요인으로 설명하고 청소년 행동장애의 원인규명을 사회정신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정신분석 및 발달 심리면에서 Kohlberg, Freud, Piaget

3) 이희선(1995), "정상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자아분화 및 정신건강의 비교연구", 효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4) 김유숙(1998),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pp. 214-215.

5) Jenkins, R. L.(1969), "Classification of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m. J of Psychiatry. 이희선(1995), p. 14.에서 재인용.

등6)은 청소년의 도덕발달과 비행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도덕발달은 가정환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중앙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객관적 사회인자 중 결혼가정, 가정경제의 곤란을 보이는 생계담당자의 직업 등이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며, 주관적 사회항목 중에서 모친의 애정빈곤, 부친의 애정빈곤, 가족의 불화 등 또한 중요한 비행지표가 된다고 하였다.7)

현은민8)은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가출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욕구충족에 대한 불만으로 긴장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가출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가정일수록 생활곤란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화와 파탄을 야기시키며 청소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들로 하여금 가출 및 범죄발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과 보호가 결여되기 쉽고 빈곤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의 발달 지연, 나쁜 교우관계의 형성 등을 초래한다.9)

그러나 일반인들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보다는 결과만을 보고 그들을 평가해 일반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최외선10)은 일반청소년들과는 달리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환경적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행청소년들은 종종

6) Freud, S.(1935).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Liveright. Kohlberg, L.(1968).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 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iaget, J.(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egan Paul. 이희선(1995), p.14에서 재인용.

7) 기백석(1987), "비행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판별 함수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선(1995), p.15에서 재인용.

8) 현은민(1999),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38, 2, p.5에서 재인용.

9) 전유자(1985), "한국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은민(1999), 전제논문, p.5에서 재인용.

10) 최외선(1992), 「가족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p.57.

무능한 자아상을 보이고 자신들의 감정·희망·가치와도 무관하게 행동하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쉽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는 강력한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함수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이나 친지들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능력하며 학교가 교육적·문화적으로 그들을 다루는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김정옥·장덕희¹¹⁾는 치료적 접근방법으로 적어도 한사람 이상의 부모나 중요한 성인과의 정서적인 관계 내에서의 안정성,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부모역할 행동 모델, 가족 외의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완충지는 부모와의 지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각종 보호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고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2. 가족체계 이론

1) 가족체계이론의 발전과정

Freud이전의 심리치료에서는 정신질환을 뇌의 기질적 문제로 간주하여 치료에 의학적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Freud는 정신질환이 뇌기능의 장애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산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서적 장애가 아동기 부

11) 김정옥 외(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2호, p.176-177.

모-자녀관계의 산물로 간주하였다. 이 때부터 가족이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Freud는 어머니의 애정결핍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보았지만, Murray Bowen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연구하던 중 환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자-공서'(母子共棲, mother-child symbiosis)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¹²⁾ 즉 이 가설은 어머니에 대한 환자의 미해결된 공서적 애착이 정신분열증이 자리잡게 될 기본적인 성격문제를 띠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간의 공서적 관계가 보다 큰 가족 정서체제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아 모자간의 문제만 아니라 전체 가족성원들의 문제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지목된 환자'(Identified patient)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치료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면서 가족치료의 효시가 되었다.

Bowen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보면,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성숙한' 수준에서 기능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적합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사람은 지나친 부적합함을 가진 관계로 이같은 부부의 결혼생활을 '정서적 이혼'(emotional divorce)이라 불렀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피상적 공존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가족전체를 치료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치료기법으로는 한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문제가 발생하여도 치료에서 어린이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기법상의 변화는 가족이란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부모에게 있어서의 변화가 동시에 어린이에게도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은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각 가족성원들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로 전체 가족성원들을 무시하고 개인을 치료할 수 없고, 치료시에 단 한 명을 놓고 치료하여도 가족성원들의 전체 기능을 다루며, 치료 목표도 개인의 증상 제거가 아니라 가족체계의 수정에 있는 것이다.¹³⁾

12) Bowen, M.(1971), "Family Therapy and Family Group Therapy". In H. Kaplan & B. Sadock.

2) 가족체계이론의 특징

가족체계에서는 세력의 균형이 붕괴되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체계가 스트레스에 봉착하면 통상적인 세력의 균형이 깨어져 불균형 상태에 놓인다. 세력의 균형은 체계이론에서는 본질적인 개념으로 Bowen의 가족연구에서도 인간에게는 개성화(individuation)와 동질화(togetherness)의 두 세력이 공존한다고 말한다. 개성화의 세력은 자주적, 독립적 유기체가 되려는 본능적 충동에 근원을 두고 동질화의 세력은 타인의 인정과 집단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누리려는 본능적 충동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 두 세력은 모든 인간 관계에 상존하는 자연적인 경향으로서 어느 하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Bowen¹⁴⁾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내에서도 지적 체제와 정서적 체제라는 두 세력이 있다. 이 두 체제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분명한 현실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불안이나 긴장이 심하면 이 두 세력의 균형이 깨어져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 예속되어 사고가 마비되며,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에 따라 행동한다.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융합되면 개성화보다 동질화를 추구한다. 동질화 세력의 영향은 개인의 사고나 감정 및 행동이 타인이나 외부의 기준을 얼마나 붙잡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동질화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집단에 소속되고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게 하여 타인의 견해에 쉽사리 동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 체제와 정서적 체제가 융합되면 화산과 같이 분출하는 정서를 통제하지 못해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신과 타인을 비현실적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자

13)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18.

14) Bowen, M.(Ed.)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Family Therapy, ed, Guerin, P. New York: Gardner Press.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S. Gurman & D.P. Kniskern(eds.), Handbook of therapy. New York : Bruner/Mazel. 제석봉(1989), 전제논문, pp.18-20.

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거나 경시한다. 지적 체제와 정서적 체제의 융합은 대인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지적 체제와 정서적 체제가 융합된 사람은 자기 개성(원리에 충실하고 타인의 신념과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기 주장을 견지함)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두 체제가 분화된 사람은 개성화 세력과 동질화 세력이 조화를 이루어, 타인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아나 개성을 상실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認定)을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의 생각이나 말에 자아상(自我像)이 결정되지 않는다. 동질화의 경향이 심한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받는 정서적 압력으로 타인의 정서에 예속되어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정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 타인과의 친밀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 관계에서 융합이 더욱 심화되어 거리를 두려고 한다. 따라서 관계에서의 융합이 심화될수록 관계의 균형이 더욱 불안정하여 만성적 불안이 발생하며, 급성 또는 만성적 증상을 나타낸다.



3. 청소년과 자아분화

어머니와 자녀간의 공서관계(共棲關係)는 분화(分化)되지 못한 정서적 일체감의 상태를 말한다.¹⁵⁾ 정서적 일체감이란 자아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로서, 어머니뿐 아니라 전체 가족성원들과의 정서적 일체감의 상태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족 자아’(family ego mass)라고 한다. 가족성원들이 각자 ‘미분화된 가족 자아’에서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fusion)되어 있으면, 진짜자기(眞我)보다 가짜자기(假我)들로 혼합된다. 진짜자기는 타의 영향이나 직접적 만족추구를 위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생활 원리와 신념으로 구성된 일관된 자아이며, 가짜

15) Bowen, M.(1965),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in hospital and private". In Hoszormenyi-Nagi & J. Framo(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자기는 타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비일관된 가치와 신념과 생활원리로 구성된다.

Bowen¹⁶⁾은 한 명이 다른 한 명과 정서적으로 상당히 가까워 자신의 감각이나 경계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융해라고 보았다. 융해의 특징은 개인의 지적, 정서적 체계를 애매하게 하는 것으로 자아분화와 대립된다. 따라서 융해가 심한 가정¹⁷⁾은 가족 각자에게 자주성과 개성이 상실되고, 정서적 관계의 추구에만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가정에서는 객관성, 지적 추리, 독립적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며 가족 각자가 기존의 가족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할 줄 모른다. 따라서 각 가족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동조(同調), 반항(反抗), 도피(逃避)밖에 없다. 반항과 도피도 체제에 대한 정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동조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충동적 행위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가족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반복된다.

Bowen이론체계의 목표는 미분화된 가족 자아(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는 8개의 개념으로써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삼각관계(triangulation), 핵가족의 정서적 구조(nuclear family emotional system),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다세대 전수과정(multiple generation transmission process), 형제순위(sibling position), 사회적 퇴행(societal regression)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자아분화는 Bowen이론의 기본개념으로써 정신 내적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개념으로 정신 내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를 보면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분화를 보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16) 김유숙(1998),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p. 346에서 재인용.

17)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Family Therapy", ed, Guerin, P. New York: Gardner Press. 제석봉(1989), 전계논문, pp.20-21.

18) 송성자(1995), 「가족관계와 가족치료(수정판)」, 홍익제, pp.140-150.

자아가 발달하게 되므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삼각관계 기능의 형태는 모든 정서적 체계와 같다. 두 사람의 정서적 체계는 긴장이 없을 때는 안정되지만 불안이 증가하면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세 사람보다 더 큰 체계는 계속해서 상호 얽혀 있는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두 사람 체계에 불안이 생기면 좀 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제 3자와 관계를 맺음(융합)으로써, 처음 두 사람간에 발생한 문제에서 우회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때, 어머니는 자녀에게로 관심을 돌린다. 이 때 어머니와 자녀는 국내자(局內者, insider)가 되고, 반면에 아버지는 국외자(局外者, outsider)가 된다.¹⁹⁾ 긴장이 아주 높게 고조되었을 때 체계는 점점 더 외부 사람과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핵가족의 정서적 체계는 단일세대 가족내의 정서적 기능의 형태를 설명한 것이다. 가족원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기능의 형태는 과거 세대가 반복되는 것이며,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된다. 고현선과 전춘애²⁰⁾의 자아 분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배우자는 자아 분화 정도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은 분화수준이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화가 이루어진 부부일수록 융합의 정도가 낮고, 혼란이 적다. 지배적이고 적응하려는 위치는 부부 각자 출생가족에서 가졌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다세대 전수과정은 자녀들의 자아분화 정도가 현재 속해 있는 세대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전래되어온 가족 투사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투사과정이 여러 대(代)에 걸쳐 계속되

19) 제석봉(1989), 전계논문, p.24.

20)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 분화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 분화 수준과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이순옥 외(1997), "부부의 자아 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p.92에서 재인용.

면 3대, 또는 8~9대에 가서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²¹⁾

형제순위에 대한 개념은 Toma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Toman의 프로타일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각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적 특징과 맏이와 막내 간의 결혼, 또 맏이와 맏이간의 결혼이 모두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심한 투사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 출생순위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과장(誇張)되어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맏이의 경우 부모와 삼각화가 심하게 이루어졌다면 막내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맏이가 갖는 특징이 과장 또는 경직되어 지나친 책임감과 죄의식에 시달린다는 것이다.²²⁾

사회적 퇴행은 가족에 대한 기본 이론을 보다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부모와 사회기관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가족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불안에 처해 있을 때 가족은 이성적으로 부모가족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반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의 결과는 증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퇴행하게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사회적 퇴행은 불안에 의해 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정서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²³⁾ 사회적 퇴행의 예로는 비행, 폭력, 이혼률의 증가, 성적인 문란, 정국의 불안 등이 있다.²⁴⁾

1) 자아분화의 주된 구성개념

21) Bowen, M.(1971), "Family Therapy and Family Group Therapy". In H. Kaplan & B. Sadock. Bowen, M.(Ed.)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제석봉(1989), 전계논문, p.27에서 재인용.

22) 제석봉(1989), 전계논문, p.28.

23)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therapy. New York : Bruner/Mazel. 제석봉(1989), 전계논문, p.30에서 재인용.

24) 제석봉(1989), 전계논문, p.30.

자아분화의 주된 구성개념으로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들 각 구성개념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한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는 그의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을 말한다.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융합되어 감정에 지배되는 삶을 살며, 사고와 추리 등의 인지적 기능이 결여되어 자기감정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또한 사랑과 인정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타인과의 관계유지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못한다. 자아가 분화된 사람은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상황하에서도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지각, 평가하며 삶의 위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자아의 통합은 자아는 진짜자기와 가짜자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아의 통합이 잘 되었다는 것은 진짜자기가 발달되었다는 뜻이다. 진짜자기는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 및 생활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라도 안정적이며 관계체제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셋째, 가족의 투사과정은 미분화된 아버지-어머니-자녀의 삼각관계에서 한 자녀 이상에게 장애가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²⁶⁾ 이러한 투사과정은 어떤 가정에서나 발생하나 투사과정이 심할 경우 개인의 자아분화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그러므로 개인의 분화는 부모로부터의 투사(投射)의 양에 달려

25) Bowen(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Hansen J. C. & L'Abate, L. (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김치영 (199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정도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16에서 재인용.

26) 송성자(1995), 「가족관계와 가족치료(수정판)」, 홍익재, p.145.

있다고도 할 수 있다. Bowen은 자녀가 정서적 투사과정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정서적으로 몰두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가족 투사과정을 위해 선택된 자녀는 어머니 생활의 긴장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장남 혹은 장녀, 외동딸 혹은 외아들,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특별한 자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정서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 결함이 있는 자녀이다. 아버지는 가족 투사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불안에 예민하고 어머니의 견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네째, 정서적 단절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Bowen은 분화과정, 즉 정서적 단절을 부모로부터의 격리, 위축, 부모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 부모가 중요시하는 것을 부정 혹은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은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 부모를 거부하고 자신을 격리시키며,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거나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⁷⁾ 인간이면 누구나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애착이 강할수록 자아가 분화되기 어렵고 또한 부모 및 자기의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경향이 심하다.

다섯째, 가족 퇴행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미분화되고 동질화의 경향이 심하여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건설적 방법보다 퇴행적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아의 분화정도는 가족의 상호작용 결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상호작용과 기능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로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부모의 태도, 성격, 양부모, 편부모, 친부모, 양부

27) 송성자(1987), 전계논문, p.147.

모의 여부,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규모 등이 있다.²⁸⁾

2) 자아분화 수준

자아분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자아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scale)'가 있는데 여기에서 척도라는 말은 각 개인마다 분화의 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임상적 정보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척도는 심리 검사가 아니며, 0에서 100까지의 수적인 연속선으로서, 어떤 사람이든 이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위치한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이다.²⁹⁾ 또한 이 척도는 정신 질환이나 정신병리를 재는 것이 아니며 분화수준이 성숙수준과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이는 개인의 자아가 가족자아집합체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사정하기 위한 이론적 척도이다. 따라서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간에 정서적 평형을 누리고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약한 반면,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적응력이 강해 증상을 드러낼 확률이 낮다.³⁰⁾

Bowen은 자아분화가 가장 낮게 되어 있는 상태를 0으로 하고, 자아분화가 가장 높게 되어 있는 상태를 100으로 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서적-지적기능을 0~25, 25~50, 50~75, 75~100의 범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³¹⁾

28) Jourard, S. M.(1967),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D.Van Nostrand, 김치영(1990), 전계논문, p.16에서 재인용.

29) 제석봉(1989), 전계논문, 금오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3에서 재인용.

30) Kerr, M. E.(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W.Norton & Company, 금오순(1996), 전계논문, pp.13-14에서 재인용.

31) Goldenberg, I. & Goldenberg, H.(1980), 「Family Therapy」: An Overview. California: Brooks/Cole. 김유숙(1998)의 전계논문, pp.142-144에서 재인용.

- (1) 가장 낮은 자아분화수준(0~25) -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용해되어 자기 자신의 사고가 침잠되어 있으며 감정에 지배되는 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은 융통성이 적고, 적응력이 부족하며, 정서적으로 의존적이다.
- (2) 낮은 자아분화수준(25~50) - 여전히 다른 사람의 정서적 체계와 반응에 유도된다. 이런 사람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 (3) 높은 자아분화수준(50~75) - 스트레스가 발생해도 감정에 지배되지 않을 만큼 사고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으며 잘 발달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 (4) 완전한 자아분화수준(75~100) - 거의 완전한 성숙함을 나타내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기능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더 가정적이다.

4.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

1)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선행 연구

갈등(conflict)이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서로 모순이 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동기, 태도, 목표, 가치등이 동시에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³²⁾ 또한 갈등은 개인 내부에서 또는 두사람 이상의 대인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이해 관계가 존재할 때 발생되며 특히 관심사와 욕구가 다를 때, 자원이 부족할 때, 정보나 신념이 다를 때 그리고 개인간에 경쟁적인 요소가 있을 때 발생한다.³³⁾

32) 임승권(1988), 「정신위생」, 서울 : 양서원. 이경희(1992), “심리극 집단상담을 통한 자아개념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에서 재인용.

33) 현은민(1994), “주부의 내외 통제성과 갈등 관리 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pp.195-204. 이현주·김순옥(1997), 전계논문. p.92에서 재인용.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표적인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주로 당사자들 사이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갈등이다. 사람들이 대인간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Leary³⁴⁾는 Sullivan의 대인진단이론에서 밝힌 지배-복종, 증오-사랑의 대인범주를 발전시켜 자율-통제, 애정-적의, 지배-복종, 애정-증오의 차원을 중심으로 한 대인행동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의 대인행동모형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대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이 제시한 행동의 상보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Terhune³⁵⁾는 갈등상황에서 참여자가 권위적, 공격적, 지배적, 독단적이며 의심하는 특성을 지닐때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참여자가 평등주의나 신뢰성, 개방성과 같은 성격적 속성을 지닐때 갈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Sternberg와 Dobson³⁶⁾은 대인관계에서 실제적인 갈등해결방식을 연구하였는데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16가지의 갈등해결방식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것을 4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첫째, 수동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유형 - 사태가 호전될때까지 기다린다.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 욕구를 줄이거나 자제함으로 갈등을 피한다. 변명이나 사과를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려 한다.

둘째, 능동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유형 - 흥정이나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갈등 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갈등상대와 직면한 문제를 대화로써 풀어나간다.

셋째, 수동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형 -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상대방이 이전에 이 같은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참고로 한다.

34) Leary.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pp.15-45.

35) Terhune, K. W.(1970), "The effect of personality i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P. Swingle, *The structure of conflict*, New York, Press. 이경희(1992), p.8에서 재인용.

36) Ster,berg, R. J. & Doboson, M. D.(1987),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 Analysis of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794-882.

네째, 능동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형 -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맞선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상대를 비난하게 한다. 상대방을 헐뜯어 말다툼을 한다.

이 중에서 갈등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능동적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며 도움을 주는 대처행동은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보면, 이주옥³⁷⁾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및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은 능동적 갈등 완화 방식을, 고등학생은 능동적 갈등 격화 방식을, 대학생은 능동과 수동의 중간 정도의 갈등 해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녀간의 차이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은 능동적 격화 방식을, 여자 청소년은 수동적 갈등 격화 방식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나타났다.

2) 자아분화와 갈등 대처 행동과의 관계



자아 발달과 대처 및 방어 기제와의 관계를 조사한 Picano는 자아가 발달할수록 갈등이나 스트레스 대처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응 양식을 취하는데 비해 자아가 발달되지 않을수록 대처 기제보다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의 한 구성 개념인 정서적 단절과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³⁸⁾를 보면 Reifman은 정서적 단절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분화 정도와 갈등 정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³⁹⁾에서 Nelson은 자아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 내적 통제가 잘되고, 자아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 분화 정도와 갈등 정도간에 유의한

37) 이주옥(1992), "청소년의 대인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아버지, 어머니 및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논문집 3, 포항전문대학 사회경제연구소.

38) 제석봉(1989), 전계논문에서 재인용.

39) 이현주·김순옥(1997), 전계논문, p94에서 재인용.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Bowen의 자아 분화가 개인의 인간 관계 기능에 관계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대인 관계와 자아 분화 정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제석봉⁴⁰⁾은 자아 분화 척도를 제작하여 조사한 결과 자아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적고, 자아 분화 정도가 낮을수록 대인 관계에 갈등이 많으며 자아분화와 적응 기제 발달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김순옥의 연구⁴¹⁾ 결과 또한 자아 분화 정도에 따라 갈등 대처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분화가 낮을수록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아 분화를 높이는 것이 개인 또는 부부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자아분화 정도가 갈등 및 역기능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아 분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0) 제석봉(1989), 전계논문.

41) 이현주·김순옥(1997), 전계논문, p.11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제주상담센터⁴²⁾에 의뢰한 특별교육생들로 99년 1,2학기에 보내진 학생들 중 90명을 대상으로 설문검사를 한 후 이 연구에서 정의 내린 대상을 선별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불충실한 것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특별교육생 54명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일반학생들은 시내 남자 고등학교 1개 반과 여자 고등학교 1개 반을 표집하여 징계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선별한 결과 69명을 확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는 <표 1>과 같이 특별교육생은 남학생 37명, 여학생 17명이며 일반학생은 남학생 31명 여학생 3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1>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

변 수		특별교육생	일반 학생	전 체
성 별	남	37(30.1)	31(25.2)	68(55.3)
	여	17(13.8)	38(30.9)	55(44.7)
	전 체	54(43.9)	69(56.1)	123(100)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하여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자아분화수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42) 1995년에 설립된 사설 상담 기관(가정폭력, 가출 상담 및 보호시설)으로서 특별교육 이수 기관임.

1) 가정환경 조사

가정환경에서 부모생존여부,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형제수, 친한 친구 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친한 친구수가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포함시켰다.

2) 자아분화 수준 측정

Bowen의 자아분화 수준 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⁴³⁾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자아분화 수준을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나누고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채점 방법은 각 문항별로 4점 척도의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4단계 평점법으로 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하위척도 및 문항수, 문항번호 그리고 산출된 신뢰도(Cronbach α)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분화 척도 검사의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계수

하위 척도	문항수	해당문항번호	α 계수
정신내적 분화	7	1*,3*,5,7*,9*,11*,13*	.76
진아 발달	6	2, 4,6,8*,10*,12	.74
가족 투사 과정	6	14*,17*,20*,23*,26*,29*	.77
정서적 단절	6	15,18*,21*,24*,27*,30*	.78
가족 퇴행	11	16,19,22,25,28,31,32,33*,34*,35*,36*	.88

(*는 채점부호가 반대인 문항)

43) 제석봉(1989), 전제논문.

자아분화의 하위척도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⁴⁾

(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사려성, 자기 감정의 통제 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충동성, 합리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 자아 통합

개인의 관계 체제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3) 가족 투사 과정

어릴 때부터 투사(投射)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간의 의사 거래 유형과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징, 즉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을 묻는 문항과 과거에서부터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 상태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항이며, 점수가 높으면 가족투사과정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4) 정서적 단절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 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족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채는 문항이며,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단절을 덜 느끼는 것을 의미함.

(5) 가족 퇴행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성원들이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 가족 성원들간의 갈등 처리 방법이나 폭력 등의 유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44) 이희선(1995), "정상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자아분화 및 정신건강의 비교연구", 효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36.

가족 성원들의 동질화 추구 경향, 가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삼자의 삼각화 경향 등을 짚 수 있는 문항이며, 점수가 높으면 가족퇴행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3)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측정

〈표 3〉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유형

갈등해결방식의 유형	해당 번호	해당 문항(구체적인 행동양식)
수동적갈등완화방식	2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다.
	3	주어진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8	홍정이나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10	변명이나 사과를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려 한다.
	13	상대방이 이전에 이 같은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참고로 한다.
능동적갈등완화방식	14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갈등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15	갈등상대와 직면한 문제를 대화로써 풀어나간다.
수동적갈등회피방식	4	내 욕구를 줄이거나 자제함으로써 갈등을 피한다.
	9	더 이상의 갈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
능동적갈등격화방식	6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상대를 비난하게 한다.
	11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12	상대방을 헐뜯어 말다툼을 한다.

Sternberg와 Dobson⁴⁵⁾이 제시한 16가지 유형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맞는지 요인분석하여 〈표 3〉과 같이 기존의 '수동적 갈등격화방식'에서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으로 변형된 4가지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마다 0점에서부터 9점까지의 수치를 주어 해당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를 표시하게 하였다.

45) Sternberg, R. J. & Dobson, M. D.(1987), 전제 논문.

3.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를 위하여 특별교육생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학교의 방학기간을 제외한 1999년 4월 ~ 7월, 9월 ~ 12월 8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학생은 특별교육생들과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특별교육생들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 한 후 학기가 시작되는 2000년 3월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교육생들은 특별교육 기간동안의 교육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입소 첫날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시 학생들이 설문내용의 이해부족으로 검사가 불충분해지지 않도록 특별교육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학생은 남, 녀 다른 고등학교에서 한 반을 선정하여 담임선생님께 설문지검사를 의뢰하였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육생들과 일반학생들과의 가정환경 비교를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특별교육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자아분화 수준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평균점수를 구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특별교육생들과 일반학생들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평균을 구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특별교육생과 일반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관련정도를 알기 위하여 spearma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정환경 비교 분석

< 표 4 >와 같이 가정환경에서 부모생존여부를 보면 특별교육생의 부모생존이 63.0%인데 반해 일반학생의 부모생존은 94.2%로 나타났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학생의 경우 결손가정이 4.3%로 적은 수치가 나타났지만 특별교육생은 결손가정이 37%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일수록 문제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기타는 부모의 생사를 모르고 친척집 등에서 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부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은 두 집단 모두 비율이 비슷하지만 대학교 졸업의 경우에 특별교육생이 8.0%이고 일반학생은 30.9%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중학교 졸업의 경우는 일반학생이 8.8%임에 비해 특별교육생은 32%이다. 여기에서 기타는 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모의 학력을 보면 특별교육생집단에서는 고졸이상이 43.4%, 중졸이하가 49.1%로 나타난 반면, 일반학생집단에서는 고졸이상이 59.4%, 중졸이하가 40.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기타는 모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부의 연령에서, 두 집단간 비교할 만한 점은 특별교육생 집단의 부의 연령이 36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학생 집단의 부가 40대는 85.1%이나 특별교육생 집단은 58%로 일반학생의 부가 많게 나타났다. 모의 연령을 보면 부의 연령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3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일반학생 집단의 부의 연령이 40대가 주를 이룬 점에서 미루어 보면 일반적으로 혼인연령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일반학생의 모의 연령은 4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예

상처럼 55%로 거의 반이 나타났다. 40대 초반에서는 특별교육생 집단이 32%인데, 일반학생 집단은 55%로 나타나 일반학생 집단 비율이 높고 나머지 연령대 40세 이하, 46세 이상에서는 모두 특별교육생 집단에서 모의 연령이 높게

〈 표 4 〉 가정환경 비교 분석 빈도(%)

집 단		특별교육생	일반학생	집 단		특별교육생	일반학생
변 수				변 수			
가정 형편	부모생존	34(63.0)	65(94.2)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16(29.6)	5(7.1)
	부만생존	2(3.7)	0		100-150만원	12(22.2)	21(12.1)
	모만생존	3(5.6)	2(2.9)		150-200만원	10(18.5)	25(19.2)
	부모이혼 (별거포함)	8(14.8)	1(1.4)		200-250만원	4(7.4)	9(8.1)
	부모사별	2(3.7)	0		250-300만원	6(11.1)	7(50.5)
	기 타	5(9.3)	0		300만원이상	5(9.3)	2(3.0)
	전 체	54(100)	69(123)		기 타	1(1.9)	0
					전 체	54(100)	69(100)
부 의 학 력	중졸이하	20(40)	8(11.7)	모 의 학 력	중졸이하	26(49.1)	28(40.6)
	고 졸	23(46)	31(45.6)		고 졸	23(43.4)	35(50.7)
	대졸이상	4(8)	27(39.8)		대졸이상	0	6(8.7)
	기 타	3(6)	2(2.9)		기 타	4(7.5)	0
	전 체	50(100)	68(100)		전 체	53(100)	69(100)
부 의 연 령	40세이하	4(8)	4(5.9)	모 의 연 령	40세이하	16(30.3)	15(21.8)
	41-45세	14(28)	30(44.9)		41-45세	17(32)	38(55)
	46-50세	15(30)	27(40.3)		46-50세	13(24.5)	13(18.9)
	51-55세	10(20)	6(8.9)		51-55세	5(9.4)	1(1.4)
	56세이상	7(14)	0		56세이상	2(3.8)	2(2.9)
	전 체	50(100)	67(100)		전 체	53(100)	69(100)
친 한 친 구 수	1명	2(3.7)	5(7.2)	친 한 친 구 수	5명 이상	25(46.3)	35(50.7)
	2명	13(24.1)	7(10.1)		없 음	2(3.7)	1(1.4)
	3명	8(14.8)	15(21.7)		전 체	54(100)	69(100)
	4명	4(7.4)	6(8.7)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학생보다 특별교육생들의 부모 혼인 연령이 조기혼인 또는 만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혼인 적령기의 나이에 혼인을 하는 것의 여부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수준을 보면 특별교육생 집단의 소득수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150~200만원 미만이다. 또한 특별교육생 집단의 소득수준을 보면 200만원을 경계로 좌우로 U자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일반학생 집단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곧 안정되지 않은 수입구조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친한 친구 수에서는 < 표 5 >와 같이 두 집단간에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친한 친구 수가 5명 이상인데, 두 집단 모두 부모 생존한 학생들이 친한 친구 수 5명에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5 > 부모 생존과 친한 친구 수 빈도(%)

친한친구수 전 체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없 음	전 체
부모 생존	7(7.1)	1(12.1)	19(19.2)	8(8.1)	50(50.5)	3(3.0)	99(100)

2. 자아분화 수준의 비교 분석

두 집단간 전체 자아분화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생이 특별교육생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t=-5.553^*$)를 보였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자아통합

($t=1.101$)을 제외하고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t=-4.800^*$), 가족 투사과정($t=-4.982^*$), 정서적 단절($t=-2.409^*$), 가족퇴행($t=-4.028^*$)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자아통합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가 자아통합을 이루는 과정인 점에서 일반학생이나 특별교육생이나 같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영역에서 일반학생이 특별교육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투사의 대상이 덜 되고, 정서적 단절감을 덜 느끼며, 가족 퇴행적 모습을 덜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투사과정을 보면 특별교육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가족으로부터 더 많이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투사의 시작은 주로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데, 어머니가 부부관계에서 불안을 느낄 때 한 자녀이상에게 그 불안을 전달하면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특별교육생집단의 부모관계가 일반학생집단의 부모관계보다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단절감에서도 자녀가 부모와의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이 있으면 정서적 단절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특별교육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이나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퇴행 영역을 보면, 가족퇴행은 가족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학생 가족이 특별교육생 가족보다 갈등시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통합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전체 자아분화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별교육생은 그들 가족에서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특별교육생들의 자아분화수준이 낮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일반학생들의 경우는 가족퇴행, 즉 가족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족성원들이 함께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학생들의 자아분화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교육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자아분화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부모로부터의 충분한 돌봄의 유무 그리고 부모가 어느 한 자녀이상에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책임, 불안, 근심을 표명하게 될 때 자녀의 자아분화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자아분화 수준 t-검정

집 단 변 수	특별교육생(54)		일반학생(69)		t값
	점 수	표준편차	점 수	표준편차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40	2.89	2.78	3.08	-4.800*
자아 통합	2.65	2.33	2.58	1.85	1.101
가족투사과정	2.36	2.63	2.78	2.86	-4.982*
정서적 단절	2.38	3.75	2.68	4.02	-2.409*
가족퇴행	2.59	3.93	2.89	4.88	-4.028*
전체자아분화	2.50	8.50	2.76	10.41	-5.553*

*p<.05

3.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비교 분석

특별교육생 집단에서는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은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일반학생 집단에서는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수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은 특별교육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대인간 갈등

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표 7>과 같이 수동적 갈등완화방식 ($t=-4.412^*$)과 수동적 갈등회피방식($t=-4.16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능동적 갈등완화 방식($t=-0.501$)과 능동적 갈등격화방식($t=-0.280$)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일반학생 집단이 특별교육생 집단보다 수동적 갈등완화방식과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교육생 집단에서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일반학생 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특별교육생들이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은 어느 집단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동적 갈등격화방식은 두 집단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또래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시기는 또래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시기인데, 격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을 때는 표면에 들어나기가 쉬워져 타인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것은 곧 자신의 이미지 형성과정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 t-검정

변 수 \ 집 단	특별교육생(54)		일반학생(69)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수동적 갈등 완화방식	4.0	1.33	5.0	1.15	-4.412*
능동적 갈등 완화방식	4.8	1.85	5.0	1.95	-0.501
수동적 갈등 회피방식	4.5	1.79	5.7	1.52	-4.164*
능동적 갈등 격화방식	2.2	1.39	2.3	1.76	-0.280

* $p < .05$

4.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관련정도를 보면 < 표 8 >과 같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가족투사과정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도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체 자아분화수준은 수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분리되어 잘 기능하지 못할수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될수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특별교육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문항에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적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갈등시 감정적으로 참지 못하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표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가족내에서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새로운 출생가족 형성시 원가족의 패턴을 답습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특별교육생들이 친구들과와의 갈등 해결시 자신의 감정을 거르지 않고 표현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 표 8 >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

	수동적 갈등 완화방식	능동적 갈등 완화 방식	수동적 갈등 회피 방식	능동적 갈등 격화 방식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50	-.269*	-.040	-.208
자아 통합	.032	.093	.053	-.131
가족 투사	.262	-.281*	-.077	.129
정서적 단절	-.084	-.003	-.004	.240
가족 퇴행	-.147	-.195	-.073	-.044
자아분화 총점	-.269*	-.286*	-.081	-.177

*p<.05 **p<.01

반면, 일반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를 보면 < 표 9 >와 같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수동적 갈등 회피방식과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가족투사과정도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체 자아분화 수준은 능동적 갈등 완화방식과 수동적 갈등 회피방식이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갈등 격화방식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잘 분화될수록 수동적 갈등 회피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며, 가족내에서 일반학생들이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학생들은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잘 분리되어 감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최대한 갈등을 줄이거나 직면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투사의 대상이 될수록 가족내에서 부모는 과도한 기대 또는 불안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잃고 부모의 감정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학생들은 가족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9 > 일반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

	수동적 갈등 완화방식	능동적 갈등 완화 방식	수동적 갈등 회피 방식	능동적 갈등 격화 방식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163	.079	.254*	-.220
자아 통합	.153	.233	-.042	-.005
가족 투사	-.065	.300*	.074	-.220
정서적 단절	.124	.232	.188	-.142
가족 퇴행	.143	.226	.214	-.198
자아분화 총점	.209	.285*	.268*	-.303*

*p<.05 **p<.01

특별교육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간에 자아분화와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과의 관련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영역과 가족투사과정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집단에서 가족투사과정영역이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상관관계가 있게 나타나는데, 두 집단에서 인지하는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의 의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는 것이지만, 감정의 정도나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투사과정은 두 집단의 차이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두 집단간의 차이점을 보면 특별교육생들은 모든 갈등해결 방식유형과 전체 자아분화수준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학생집단에서는 능동적 갈등격화방식만이 전체 자아분화수준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대인간 갈등시 어떠한 해결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일반학생 집단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육생집단과 일반학생집단의 가정환경을 비교 분석했을 때 부모 생존여부를 보면 특별교육생의 부모생존이 63.0%인데 반해 일반학생의 부모생존은 94.2%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은 두 집단이 비슷하지만 대학교 졸업의 경우에 특별교육생이 8.0%이고 일반학생은 30.9%이다. 이와 반대로 중학교 졸업의 경우는 일반학생이 8.8%임에 비해 특별교육생은 32%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을 보면 35세 이하는 없었지만, 특별교육생집단의 경우 부의 연령이 36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학생집단의 부가 40대는 85.1%이나 특별교육생의 경우 58%로 일반학생의 부가 많게 나타났다. 모의 연령또한 두 집단 모두 부의 연령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별교육생 집단의 소득수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학생 집단의 소득수준은 가장 많은 비율이 150~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교육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간에 자아분화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자아분화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생들이 특별교육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 하위영역에서는 두 집단간에 자아통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학생들과 특별교육생들의 자아통합정도는 비슷하며 지적체계와 정서적체계는 일반학생들이 더 잘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특별교육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가족내에서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더 많이 되고 있으며 정서적 단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문제해결시 가족퇴행적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별교육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간에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생들은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일반학생은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능동적 갈등 격화방식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특별교육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간에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관련정도를 보면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에서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가족투사과정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도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체 자아분화수준은 수동적 갈등완화방식과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학생의 경우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수동적 갈등회피방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족투사과정도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전체 자아분화수준은 능동적 갈등완화방식과 수동적 갈등회피방식이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능동적 갈등격화방식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학생들과 특별교육생들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 해결방식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은 특별교육생들은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될수록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많이 사용하였고, 일반학생들은 가족투사과정을 겪지 않을수록 능동적 갈등 완화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전체자아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면 일반학생들이 특별교육생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 중 정서적 단절감 영역에서도 일반학생들이 특별교육생보다 정서적 단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청소년들이 특별교육생들보다 관심과 보살핌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특별교육생들은 사랑과 애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교육생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징계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 대신에 특별교육이라는 상담교육과정을 받고 있지만, 치료교육과 더불어 예방교육을 더 확대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별교육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족투사과정을 들 수 있다. 가족내에서 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부모가 투사를 하는 대상이며 자녀가 투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고패턴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가족을 단위로 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캠프를 통한 친밀감 형성, 의사소통 훈련, 가족체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원가족과 현 가족과의 비교, 부모 자녀간의 역할 이해하기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적은 아버지들을 위해서는 직업현장에서의 부모교육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서 보여 주듯이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므로 저소득층 가족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동시에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료적 접근에서도 특별교육생 1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상담보다는 가족원들이 대상이 되는 가족상담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교육생들의 부모가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같이 참

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면, 특별교육생의 경우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이 자아분화와 세 가지 영역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능동적 갈등완화방식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로 의미파악을 하고 있거나 혹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이어 특별교육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관계, 형제관계, 부모의 원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도 같이 조사를 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반학생들을 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점에 있어서 일반학생의 기준이 확실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별교육생이 특정집단이라는 특성상 8개월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구하는데 숫자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들을 조사하면서 성별, 연령별, 징계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상무(1999), “심리극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아강도와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집단변수 미치는 영향-여고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분용(1992), 「우울하고 공부가 안돼요」, 새교육, 학국교원신문사.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오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백석(1987). “비행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판별 함수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1996), “심리극을 통한 사회성과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1998), 「가족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서울.
- 김정옥 외(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4권 2호.
- 김치영(1990),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 및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정도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95), 「가족관계와 가족치료(수정판)」, 홍익제, 서울.
- 이경희(1992), “심리극 집단상담을 통한 자아개념과 대인간 갈등해결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1992), "청소년의 대인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아버지, 어머니 및 동성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논문집, 3, 포항전문대학 사회경제연구소, 197-221.
- 이현주·이순옥(1997), "부부의 자아분화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 이희선(1995), "정상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자아분화 및 정신건강의 비교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권(1988), 「정신위생」, 서울: 양서원.
- 현은민(1994),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갈등 관리 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유자(1985), "한국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외선(1992),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원사.
- Bowen, M.(1965), "Family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in hospital and private. In Hoszormenyi-Nagi & J. Framo(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1971), "Family Therapy and Family Group Therapy". In H. Kaplan & B. Sadock.
- Bowen, M.(Ed.)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Family Therapy, ed, Guerin, P.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1982). :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Freud, S.(1935).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Liveright.
- Goldenberg, I. and Goldenberg, H. (1980), "Family Therapy": An Overview. California: Brooks/Cole.
- Hansen J. C. & L'Abate, L. (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 Jenkins, R.L.(1969), "Classification of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Am. J of Psychiatry.
- Journard, S. M.(1967),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D.Van Nostrand,
-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A.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therapy. New York : Bruner/Mazel.
- Kerr, M. E.(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W.Norton & Company.
- Kohlberg,L.(1968).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 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Piaget, J.(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egan Paul.
- Ster,berg, R. J. & Doboson, M. D.(1987),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 Analysis of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794-882.
- Terhune, K. W.(1970), "The effect of personality i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P. Swingle, The structure of conflict, New York, Press.
- Toman, W.(1969), "Family constell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Abstract>

**A study on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of 'delinquent student'**

Ko Min-Joa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ion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 Kim Hye-Sook

Differentiation of self refers that intellectual and emotional system works well inside of a person, and that a person has a definite identity that is not shaken easily by the surrounding influences outside of him or her.

Students who have low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re likely to have problems because the students have difficulty in circumstantial judgement and have indefinite identity, negatively affecting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If these students cause problems at school and are submitted to disciplinary punishment, they become delinquent students. If we know these students'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onflict resolution modes,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view of general public and those who counsel and guide thos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students to see and approach to these delinquent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compare family environment,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to normal adolescents in this circumstance.

The experimental population of this study is a group of special educatees committed by highschool in Cheju city to an Institution of special training, the Cheju Counseling Center. For collecting data about the special educatees, 9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eight months of 1999 except vacations and 54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he case of the control group, data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randomly selected highschool second year one boy class and one girl class.

For this study, family environment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were compared, t-test was performed for intellectual function versus emotional function, self-integration, emotional cutoff, family regression, family projection, and the whole differentiation of self which are five subcategories to measure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addition, to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the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the Examination Of the Correlation of Spearman was used and SPSS/PC+, a program for statistical analysis, was applied for classification of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for the family environment, the item of family situation, 63.0% of the parents of the special educatees were alive, compared to 92.4% of the control group. As of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fathers, 8% of the fath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graduated from university, 40% graduated from elementary or middle school. Meanwhile, 39.8% of the fathers of the control group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and 11.7% graduated from elementary or middle school. 85.1% of the fathers of the participants in the control group were in their 40s, while the ages of the fa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between 36 and 60. The ages of the mothers also showed a similar trend. Family income for the experimental group averaged under 1 million won, while the control group averaged under between 1.5 and 2 million won.

Second, for the subcategorie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ll categories except self-integr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family projection, felt more emotional cutoff, and more family regression in their conflict resolution than the control group. Also, the whol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of the control group was high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

Third, under the category of the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both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used the active conflict intensify mode least. The experimental group used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most, the control group used the passive conflict refrain mode most.

Fourth, for the degre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modes of the experimental group, intellectual function versus emotional function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the process of family projection and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Also, the whol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passive conflict mitigation mode and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In the case of the control group, intellectual function versus emotional function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assive conflict refrain mode, the process of family projection also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The whole levels of differentiation of self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and the passive conflict refrain mode and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ctive conflict intensify mode.

The much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is that the more the experimental group used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the more they experienced the process of family projection and the more the control group used the active conflict mitigation mode, the more they didn't experience the process of family projection. As the consequence of this, to affect strongly on both groups depends on whether they become the process of family projection or not. As the process of family projection results from the dysfunction of family system, for the experimental group not to be the objection of family projection, the plan that can change the family system has to be found by developing the precautionary program for the family.



부 록



자아분화 척도

본 설문지는 검사가 아니므로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대답하기가 다소 애매하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과 일치되는 문항에 v표로 체크해 주십시오.

*1~13번까지의 문항은 최근 2년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14~36번까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정말 그렇다.(4)

	1	2	3	4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흥적으로 결정한다.				
2. 내가 내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남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보다, 내가 그렇다고 판단할 때이다.				
3. 나는 사람들에게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				
4.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중시한다.				
5. 나는 내 감정을 잘 통제한다.				
6.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7.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8. 나의 말이나 의견이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9.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0. 내 계획이 주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1. 나는 싸움에 잘 말려든다.				
12.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위의 말은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을 따른다.				
13. 나는 화를 잘 낸다.				

	1	2	3	4
14.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대한 근심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15.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1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 본분을 다 했다.				
17.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못미더워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8.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19. 우리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여간해서 가족간에 금은 가지 않았다.				
20. 우리 부모는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21. 나는 부모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싶다.				
22. 가족들 간에 말썽이 일어도 대부분 서로 상의 해가며 해결해왔다.				
23. 부모님은 나에게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24.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25.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26. 내가 처한 상황은 전부터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대로이다.				
27.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다.				
28.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부모님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처리하셨다.				
29.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내게 던지곤 했던 걱정이나 근심과 비슷하다.				
30. 나는 부모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31.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단란했다.				
32. 우리 가족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라도 서로 존중해준 편이다.				
33. 나는 어릴 때, 차라리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일에도 잘 싸웠다.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 관심이 없다.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아래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갈등 해결방식 중에는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방식과 아주 일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각각의 해결방식이 당신의 갈등 해결방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제시된 척도 위에 V표로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맞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주어진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 인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내 욕심을 줄이거나 자제함으로써 갈등을 피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제3자로 하여금 갈등을 조절하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 상대 를 비난하게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갈등상대와 접촉을 제한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8. 흥정이나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더 이상의 갈등에 직면하는 것을 피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변명이나 사과를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상대방을 헐뜯어 말다툼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상대방이 이전에 이 같은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참고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갈등상대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갈등상대와 직면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갈등상대와 결별을 선언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은 여러분 개인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빠짐없이 해당번호 앞에 있는 □에 V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가정환경은?

- ①부모 생존 ②부만 생존 ③모만 생존 ④부모 이혼(별거포함)
⑤부모 사별 ⑥계부 ⑦계모 ⑧기 타()

2. 아버지가 계신 경우 아버지의 학력은?

-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⑥기 타()

3. 어머니가 계신 경우 어머니의 학력은?

-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⑥기 타()

4. 아버지의 연령은?

- ①35세 이하 ②36-40세 ③41-45세 ④46-50세
⑤51-55세 ⑥56-60세 ⑦60세 이상



5. 어머니의 연령은?

- ①35세 이하 ②36-40세 ③41-45세 ④46-50세
⑤51-55세 ⑥56-60세 ⑦60세 이상

6. 가정에서의 한달 월수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100만원 미만 ②100-150만원 ③ 150-200만원
④200-250만원 ⑤250-300만원 ⑥300만원 이상

7. 형제 수는 몇 명입니까?

- ①1명 ②2명 ③3명 이상 ④없음

8. 가장 친한 친구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이상